

적폐·북핵·FTA 재협상... 첫날부터 난타전

국감 20일 열전 돌입...북핵, 대화vs전술핵 대응 놓고 공방 '문재인 케어' 준비 부실 지적...FTA 재협상 말바꾸기 비판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12일 20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12개 상임위를 열어 정부부처를 상대로 국감을 실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보수 정권 시절 '적폐'를 드러내는 데 주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북핵 위기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등 굵직한 현안을 둘러싼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파헤치겠다며 이른바 '신적폐' 공세를 맞붙을 눈앞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무분별한 정쟁 대신 정책 국감을 지향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정부위의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을 놓고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한국당 김중석 의원은 "지금 진행되는 적폐청산이 정당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느냐"며 "광신주교 여론몰이를 하는데 당한 사람들이 수용하겠느냐. 또 다른 적폐 누적이 아니냐"고 따졌다. 반면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명백한 불법을 처리하고 조사하거나 정리지 않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생각 수가 없다"고 맞섰다. 같은 당 최은열 의원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고쳐지지 않으면 선진사회로 갈 수 없다"면서 "적폐청산"이란 용어가 조금 과거 회귀적 어휘다. 과거에 얽매인 느낌을 줄 수 있어 미래지향적 여취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성공할 것 같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외통위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을 놓고 여야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안보 문제에 대한 초당적 대응

을 요구했지만 야당은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야당은 정부 외교·안보라인 간의 '잇박자'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관련해 서로 비판을 쏟아냈다.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는 여당의 '의료적폐 청산' 주장과 야당의 '문재인 케어'에 대한 비판이 충돌했다. 민주당에서는 남인순 의원은 "적폐청산 과정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며 "건강보험부과체계가 왜 이렇게 됐는지, 진주의료원 폐업 등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이른바 치매국가책임제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문재인 케어'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문제와 관련, 야당 의원들이 개정협상과 관련해 여권이 '말 바꾸기'를 했다고 따졌다. 또 야당 의원들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농식품부 예산 증액이 충분치 않다고 비판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교육부 국감에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 의원들은 재외공관까지 국정화 홍보에 동원됐다고 지적, 여론 조작 의혹을 제기했고, 야당 측은 국정화 찬성의견 상당수가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는 진상조사서 전달 발표의 편향성을 문제 삼았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는 정부의 탈(탈)원전 정책과 관련,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둘러싸고 여야가 논쟁을 벌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이버 사령부 대선 개입 질의 송영우 국방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등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서영오 의원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감 브리핑

이게호 "쌀값 회복위해 시장격리 85만t 이상 늘려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게호 의원은 12일 "20년 전으로 떨어진 쌀값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시장격리 물량을 85만t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의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풍작이 예상되는 올해 쌀 출하가 본격 시작되면 최근 소폭 상승한 쌀값이 다시 폭락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또한 정부가 올해 쌀 수급안정 대책을 통해 총 72만t(공공비축·해외공여용 35만t, 시장격리 37만t)의 정



부 매입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는 2016년과 비교해 3만t 증가에 불과해 현재 대책으로는 쌀값을 회복하는 데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결국 연간 24만t의 소비감소를 감안하면 전년 대비 3만t 추가 격리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지난해 대비 85만t 이상 시장격리를 위한 정부의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인화 "건고추 생산 15년간 반토막...한국 매운맛 사라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12일 "국내 건고추 자급률이 지난 2002년 106.2%인 것이 2016년 49.6%로, 반토막 났다. 한국인의 매운 맛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국내 건고추 생산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건고추 생산량은 지난 2002년 19만2753t이던 것이 2016년에는 8만5453t으로 15년사이 10만7300t(55.7%)이 감소했다. 건고추 재배 면적도 2002년 7만2104ha에서 2016년 3만2179ha로 15년간 55.4% 줄었다.



고추농가의 연평균 소득의 경우 2002년의 경우 343만6945원에서 2012년 639만4828원으로 치솟았다가 지난 2016년 평균 소득은 320만3622원으로 15년 전 소득보다 오히려 6.8%가 감소했다. 정인화 의원은 "고추는 우리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양념채소로 국내 고추생산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khh@

靑 정책기획위 내달부터 본격 활동

정부의 주요 정책과 관련한 과제 개발 등의 역할을 하는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가 총 100명 이내의 규모로 꾸러질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11월께 위원선임이 완료되면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12월 청와대에 따르면 정책기획위는 ▲국민주권(정치·행정·사법) ▲국민성장(경제·과학기술) ▲분권·발전(사

치분권·균형발전) ▲포용사회(복지·노동·환경) ▲평화번영(외교·안보) 등 5개 분과로 구성된다. 각 분과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분야별로 맡아서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수정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산하에 별도의 사무처를 두며 청와대 정책기획비서관이 간사로서 위원회를 총괄·운영하게 된다. /임동욱기자 tuim@

보수 야권 재편 급물살... 10월 빅뱅?

바른정당 통합파 통추위 구성 속도...자강파 반발시 부분통합 추진

바른정당 내 통합파가 탈당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수 야당 진영의 재편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12일 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에 따르면 양당은 보수대통합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할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를 구성해 통합을 추진하는 동시에 사정에 여의치 않을 경우 한국당과 통합파만이 손을 잡는 시나리오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바른정당 내 자강파의 반발이 계속될 경우 일종의 '부분통합'이라도 추진키로 한 것이다. 통합파들은 일단 통추위 구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국당 이철우 최고위원은 오는 13일 당 지도부에 통추위 명단을 보고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이날 중 홍문표 사무총장 주도로 대략적인 명단을 짜기로 했다. 통추위는 한국당 3명, 바른정당 3명, 외부 인사 3명 등 9명으로 구성하고, 외부 인사는 이재오 전 의원이 주도하는 늘푸른 한국당 인사와 보수 진영 시민단체의 인사를 포함한다는 구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장으로는 박관용·김형오·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 보수 진영의 정치 원로를 영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통합의 분수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시점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는 오는 16일 자정이다. 법원은 13일까지는 구속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구속 기간 연장 여부 결정이 내려진 직후에 곧바로 윤리위원회를 열어 박 전 대통령과 친박근혜(친박)계 핵심인 서정원·최경환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윤리위가 지난달 13일 당 혁신위원회의 권고안대로 '자진탈당'을 권유할 경우 곧바로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이 대규모 탈당을 결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권은희 의원직 유지 판결

지난해 4·13 총선 과정에서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벌금 80만 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야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선거 공보물과 명함, SNS 등에 '하남산단 2천944억원 예산 확보'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광주 광산을 박인화·여수시를 정기명

민주 조강특위 지역위원장 단수후보 12명 심사·의결

더불어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위원장 이춘석 의원)는 지난 11일 오후 회의를 열어 광주 광산에 박인화 전 광주주시의원, 여수시에 정기명 변호사를 각각 단수추천하기로 하는 등 12명의 지역위원장 단수후보를 심사·의결했다. 또 직무대행 체제였던 순천의 경우 김광진 전 의원, 노관규 전 순천시장, 서

갑원 전 의원을 대상으로 오는 18일 면접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나주·화순 지역위(신정훈 농업비서관 등 지역위원장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이동하면서 공석이 된 사고 지역위원회에는 직무대행을 임명키로 했다. 조강특위의 이런 결론은 최고위원회 및 당무위원회 의결로 확정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8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3년
1954~2017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대학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특별전형

① 원서접수 : 2017. 11. 21(화) ~ 11. 29(수)

② 전형일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전형일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45	2017. 12. 1(금) 오후 2:30

■일반전형

① 원서접수 : 2017. 12. 1(금) ~ 12. 12(화)

② 전형일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전형일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20	2017. 12. 15(금) 오후 2:30
		신학과(Ph.D.)	6	2017. 12. 15(금) 오전 9:40
		목회학과(D.Min.)	2	2017. 12. 15(금) 오전 9:40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5	
일반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코칭심리학과(D.Psy.)	5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5	
석사	신학과(Th.M.)	25	2017. 12. 16(토) 오후 2:40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사회복지학과(M.S.W.)	20	
국제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10	
		한국어교육학과(M.A.)	20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학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학과	18
	국제한국어교원학과	1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2
	유아교육과	2
예능	음악학과	5
	실용음악학과	4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7. 12. 30(토) ~ 2018. 1. 2(화)

• 전형일 : 2018. 1. 9(화)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영산리2길 36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 대학원 0621 605-1115